

인권정보자료실  
CPb1.71

MBC 창사 40주년 특별 기획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1년 방송

42회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MBC 창사 40주년 특별 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1년 방송 제 42회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인권정보자료실  
CPb1.71  
시사교양국

MBC 창사 40주년 특별 기획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1년 방송

42회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목차

---

1. 기획안
2. 보도자료
3. 대본
4. 섭외리스트
5. 촬영 계획서
6. 전향공작 보도자료 인물 정리
7. 전향공작 관련 정리
8. 교도소별 사상전향 고문실태
9. 사상통제의 역사
10. 출소 비전향 장기수 약력
11. 2000년 9월 2일 북송장기수 명단
12. 사회안전법 출소자 명단
13. 1990년 당시 비전향 장기수 명단
14. 옥중 사망자 명단
15. UN 인권이사회 관련 클리핑
16. 1992년 2월 15일 대전교도소 비전향 장기수의 사상전향제에  
대한 헌법 소원
17.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전문
1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B협약) 전문
19. 72년, 78년 교정예규집 중 좌익수형자 관련 부분
20.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자료집 내용  
-자료집은 2권으로 만들어 MBC 도서관에 이관

# 1. 기획안

MBC 창사 40주년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기획안**

1. 프로그램명 : MBC 창사 40주년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2. 방송예정일 : 2001년 8월 10일

3. 방송예정시간 : 금요일 밤 9시 55분 (55분)

4. 기획 : 이채훈 (시사교양국 특임 4CP)

5. 연출 : 강지웅

**6. 기획의도**

작년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복송되었다. 그러나 복송을 희망했던 수많은 장기수는 전향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복송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중 33명은 전향 무효 선언을 하고 복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70년대 초반 가해졌던 살인적인 전향공작을 고발하고, 폭력적인 전향공작의 결과로 전향자로 분류된 이들은 전향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심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향제도의 비인간성은 장기수들 뿐만 아니라, 1980년 군사정권 당시 동료를 밀고하도록 만들었던 ‘녹화사업’ 피해자들이나, 최근 전향제도를 대체했다는 ‘준법서약서’를 쓰고 석방된 시국사범들이 출소후 괴로워하는 모습등에서 여전히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제의 잔재라는 전향제도의 본질을 살펴보고, 사상범들에게 가해진 전향공작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7. 주요 내용**

-일제 시기 독립운동가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치안유지법은 사상전향제도, 보호관찰법, 사회안전법, 보안관찰법, 반공법등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우리의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다. 최근 마련된 준법서약서 또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상통제의 역사. 이를 되짚어본다.

-7.4 남북공동성명을 기점으로 극에 달한 전향공작은 수많은 사상범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심지어 강도·살인 및 폭력전과 재소자들에 의해 무시무시한 고문이 자행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전향공작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의문

사를 추적하여, 전향공작의 잔인성을 살펴본다.

-비전향장기수는 결국 북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을 맛보았으나, 전향서에 서명한 많은 장기수들은 북송의 꿈이 좌절되고 말았다.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고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린 그들은 자신들의 전향은 살인적인 고문에 의한 강제 전향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북송을 요구하고 있다. 남아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2. 보도자료

<MBC 창사 40주년 특별기획-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방송 : 2001년 8월 10일 밤 9시 55분

기획 : 이채훈 789-1551, 019-214-1917

연출 : 강지훈 789-1587, 011-9997-2786

## 대한민국에 비전향 좌익수는 없다!

### 법무부 예규 108조 '전향공작 전담반 운영지침' 시달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던 이듬해, 각 교도소에는 특명이 떨어진다.

“모든 비전향 좌익수를 전향시켜라.”

법무부 예규 108조

73년 8월, 이러한 요지의 법무부 예규 108조 '전향공작 전담반 운영지침'이 각 교도소에 시달되면서 장기수들이 기억하는 소위 '전향 테러'가 시작되는데, 이로 인해 전담반이 설치된 73년 하반기부터 75년 까지 채 2년이 못되는 기간 동안 400여명에 이르던 전국의 비전향 좌익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과연 이 같은 패거리를 거둔 전향공작의 묘수는 무엇이었을까?

### 떡봉이와 사랑몽치

출소한 장기수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향공작 전담반은 추위와 더위를 이용한 학대는 물론이고, 중병 환자에 대해서도 전향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할만큼 잔인했다고 한다. 여름이면 0.75평의 방에 10여명을 집어넣어 숨막히게 하고, 겨울이면 바닥에 물을 부어 얼어붙게 했으며, 심지어 폭력배 출신의 재소자를 이용한 살인적인 수준의 구타와 고문이 있었노라고 치를 떨었다. 일명 떡봉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재소자들은 좌익수 긴방 열쇠와 사랑몽치라 불리는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수시로 좌익수들을 불러내어 폭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수들은, 떡봉이들이 많은 좌익수를 전향시킴으로써 가출옥을 약속 받았고, 전향공작 담당반원은 한 명 전향시킴에 따라 그 수고비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에 대해 당시 전향공작을 담당했던 교도소 관계자들은 전향공작이란 상담과 대화를 통한 인간적인 것이었으며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전향공작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사에 대해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올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73년, 각지의 교도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내 소원은 보리밥 한 번 원 없이 먹어보는 것.

비전향자들은 누진처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누진처우제도란, 행형 성적에 의하여 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무기수도 이 제도로 인해 감형과 가석방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비전향 죄익수들은 이 제도에서 제외되고, 진급 기회가 박탈되었다. 때문에 가석방의 가능성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처우의 개선도 바랄 수 없게 되었다.

누진처우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들의 생활은 교도소 내에서 항상 최악이었다. D급에 머물러야 했던 비전향 죄익수들은 가장 적은 양의 식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항상 영양 실조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또한 행형법에 의하면 독거는 2년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비전향 장기수는 2, 30년이 넘는 기간의 대부분을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는 독거 생활을 해야만 했고 운동도 방사선형 우리에서 한 사람씩 격리된 채 감시 속에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내야만 했다. 거기다가 책의 반입이 금지되었고, 서신은 제한되었으며, 직계가족과의 접견도 전향공작 상 필요하다고 여길 때에만 허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처우에 대한 유일한 반항은 목숨을 건 수십 일 간의 단식뿐이었다.

### 종이 한 장의 의미

우리 나라의 사상전향제도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사회주의 자들과 조선의 독립군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 그 자취를 감췄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해방 이후에도 우리 나라에 남아, 사회안전법, 반공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이름을 달리하며 우리의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다.

### 사회안전법

4.19당시 20년으로 감형되었던 죄익수들이 대거 출소할 시기인 1975년.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는다. 긴급조치 9호의 발동과 함께 사회안전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사회안전법은 전향하지 않은 죄익수에 대해서는 보호감호라는 명목 하에 평생을 보호감호소 안에 가두어둘 수 있도록 만든,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법으로서, 이로 인해 이미 형기를 다 마친 죄익수도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금 간혀야 했다. 명목상 보호감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은 교도소보다 낫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다섯 건의 사건 중 두 건은 보호감호소에서 일어났다. 반공이 국시였던 시기, 대한민국이 정한 사상의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 소위 빨갱이의 인권은 어떤 식으로든 유린당해도 좋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분위기는 이러한 법의 등장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 준법서약서

정부는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사상전향제도는 폐지되었다고 공언하지만, 대안으로 등장한 준법서약제 역시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여 사상전향제와 다름 아니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심수를 풀어주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법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는 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지켜질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양심수들은 끝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사상의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드디어 나도 인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자신의 전향은 고문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선언한 68세의 김영식씨는 기자회견 끝에 드디어 자신도 인간이 되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폭력 앞에 자신의 사상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남은 삶을 죄인 마냥 숨죽여 살게 했던 것이다. 실제로 비전향 장기수들은 통일 운동 등에서 활발히 나름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반해, 전향 장기수들은 한 때 동지였던 그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며,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비전향자에 대해서는 복송을 허가하였으나, 전향이 족쇄가 되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전향자들은 더욱 좌절해야만 했다.

전향 이후, 더욱 황폐해진 그들의 삶을 통해 사상전향제도가 가지는 비인간성을 되짚어본다.

### 주요 출연자

장기수/

양희철 씨

서준식 씨

권낙기 씨

김영식 씨

안학섭 씨

이일재 씨

서옥렬 씨

임방규 씨

박원순 변호사

이종걸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전향공작전담반 당시 교회사 및 교회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형태 위원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관계자



### 3. 대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VIDEO	AUDIO	<1>
신문기사	1995년 8월 15일. 간첩죄로 40년 이상 복역한 비전향 죄익수 3명이 석방됐다. 세계최장기수 김선명도 이날 출소했다.	
김선명	SOV)강제로 전향을 시키기 위해서 형무소에 공작반이 생겼어요. 그 때가 켈 힘들었어요 사회에서 <u>깡패짓하던 사람들을 큰 방에다 집어넣고, 우리 선생들을 때리고, 바늘로 찌르고 죽이고, 그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u>	
양희철	SOV)전향공작에는 인간성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때는 맞는 사람이나 고문하는 사람이나 금수가 되고 맙니다. 짐승이 되고 맙니다. 인성은 없고 전부다 수성. 깨나고 나면 아, 또 하루를 살았구나	
서준식	SOV)대한민국 실정법에 저촉돼 감옥 살이 시킨다 10년이든 20년이든 무기든 옥살이 시키는 건 좋다 이겁니. 왜 사람들 사상까지 바꾸라, 감옥에 그냥 가둬 놓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감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상까지 바꾸라고 그 무지막지한 테러를 하고, 죽음으로 몰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한 시대의 야만입니다.	
신현철	SOV)나는 너희들이 나를 뭐라 그러는 건 자유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공산주의자야 아니야 민주주의자다 그딴 걸 말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내 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라는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걸 나한테 묻지 말라고	

전향취소 기자회견

지난 2월.  
장기구금 양심수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SOV)장기구금 양심수 전향무효

발표하는

앉아있는 사람들

기자회견을 하는 33명은 간첩죄로 복역 중  
전향을 한 죄익수들이다.  
출소 후, 자신들의 전향이 무효라고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었다.  
과거 전향한 사실을 무슨 이유로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류현철 기사

정순택 취소 기사

권낙기

SOV)얼마전에 비전향 장기수 무효선언, 취소가  
아닙니다. 뒤풀이 가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선생들 자의에 의해서 전향한 것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내가 강간을 당하다싶이 내 양심이 강간  
을 당하고 난 뒤에 그게 강제든 뭐든 간에 강간  
당한 그 부끄러움에 의해 그들에서만 살다가 오  
늘 떳떳하게 나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무효선언  
을 하고 나니 새로 태어난 기분이다 하고 이렇  
게 속 시원할 수 없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봤  
습니다

김영식

SOV)아 부럽죠. 아휴 나도 저 고개만 넘었으면  
저렇게 떳떳하게 살긴데 내가 그 고개를 넘지  
못해서 떳떳하지 못 하고 부끄럽게 이렇게 어디  
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말이야 아 참 부  
끄럽게 사는구나 나는 후회가 막심해. 진짜 시방  
도 그래 후회가 막심해

밥 먹는

한상열

김영식

전향이란  
법령집

부정보이고

일제 모습

절하는  
죄수 사진

잠허가는 죄수들

강용주

1962년, 남파 공작선 선원으로 체포  
26년 간 감옥살이를 했다.  
그는 전향 무효 선언을 하고  
가장 기뻐한 사람 중 하나였다.

SOV)나도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 그말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야 인간  
이 됐다는 거. 그 동안 오죽했겠어요.  
SOV)왜 못 버티셨어요? 약하니까 그렇지 약하  
니까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인, 전향.  
그 법률적 의미와 근거는  
법무부령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자가  
자신의 사상을 버리겠다는  
성명서나 감상록을 제출하는 것이  
전향의 형식이었다.

전향제도의 기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5년 일본은 반정부 활동을 하는  
공산주의자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한다.  
이 법의 위반자에게,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는 사상을 버리고  
비합법 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시작된 것이 사상전향.  
1931년 사상전향제도를 공식화하고  
일제말기, 그 강도를 높인다.

SOV)니가 갖고 있는 진보적 사상을 포기할 뿐  
만 아니라 비합법활동을 하고 이를 실천활동을  
하는 것을 포기할 뿐만아니라 니가 갖고 있는  
생각자체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이 요구하는  
텐노헤이까, 천황폐하께서 요구하는 그 사상으로  
무장해라, 그게 일본정신 야마또 디마시 일본정  
신으로 무장이 됐을 때만 전향으로 받아들입니

VIDEO AUDIO <2>

김영식 걸레걸하는

북한이 고향인 김영식은  
그곳에 아내와 두 자녀가 있다.

다.

VIDEO AUDIO <3>

손들고 나오는 포로들

일본 패망과 함께 전향제도도 사라지지만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전향제도가 등장한다.  
좌익수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때부터 전향하지 않은 좌익수들은  
차별대우를 받기 시작한다.

양희철

SOV)장 우리가 형무소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슬픔이 뭐냐면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배가 고파  
서 나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기지 못해  
서.

권낙기

SOV)그때 당시에 나보고 권낙기 소원이 뭐냐  
우리 조국이 통일되야 합니다. 안그렇습니다. 보  
리밥 한 번 실컷 먹었음 좋겠다. 두 번째 소원이  
머냐 물으면 저 보리밥 한 번 배터지게 먹었음  
좋겠다 세 번째 소원이 뭐냐 물으면 내 출소하  
면 반드시 엄마한테 가가지고 저 콩보리밥 한  
번 해달라 해가지고 저거 한 번 몇 날 며칠을  
내가 배터지게 한 번 먹어 보겠다고 포약을 가  
졌더라니까요.

누진처우규정

형편없는 식사량이 위법 사항은 아니었다.  
모든 수형자는  
범죄의 정도와 개선 가능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는데,  
비전향 좌익수들은 급외인 D급으로 분류.  
일하는 것이 금지되고, 누진점수를 받지 못해  
결국, 가석방과 사면 대상에서 제외 된다.  
하지만, 전향을 하면 C급으로 올라가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된다.

변의한 확산법

식사량

급외 판정을 받은 비전향자들에게  
식사량과 같은 차별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양희철

SOV)180그램인가, 220에서 180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 밥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  
것만 먹으면 그렇게 배고픈 게 아닙니다. 그것  
이. 또 찬 제대로 준다면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  
까, 그렇게. 그리고 이것이 점점 누적돼서 절대  
누적량이 점점 누적되면 더 고퍼지는 거예요. 그  
래 이 턱을 못올라 가는데. 단백질 부족현상 같  
으면 무릎을 못 씹습니다. 이걸 나중에 못해요. 그  
래 그때 콩, 의무과에서 콩 한흙을 처방을 해줘.  
볶은 콩 한흙을 처방을 해줘. 볶은 콩 한 흙 먹  
잖아요. 그럼 거짓말 같이 일어나. 그게 아주 최  
저 한계선에 다 도달해 있었어. 이 건강자체가

박통 등장 악수하고  
광주교도소

비전향좌익수에 대한 법적인 차별과 탄압으로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CG

1973년. 남아있던 비전향좌익수는 400여명.  
이들 앞에는 강제전향공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권낙기

SOV)한방에 0.75평밖에 되지 않는 0.75평입니.  
냉장고 세 개만 갖다 놓으면 0.75평이라. 그 0.75  
평 속에 그 삼복더위에 자그마치 사람을 18,19명  
씩 방안에 집어넣어 고통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  
이

김영식

SOV)1.5평인가, 요런데다 사람을 열하나 열둘을  
그냥 뺨뺨하게 놓더라고 완전히/ 넓은 방 다 나  
두고 조그만한 방 그 독방 한 방 있잖아 그 독  
방에다가 사람은 전부다 넣어요 그래서 드가 앉  
아서도 죽으라하고 밤새 한 숨 못 자고

VIDEO AUDIO <4>

백남준 - 전향공작 리얼화

좌익 수행자 전향공작 운영지침

73년 여름, 강제전향공작이 등장한 배경에는 좌익수 전향공작 전담반의 창설이 있었다. 법무부의 공개채용을 통해 대졸이상 학력의 교회관과 교회사가 선발되고 이들을 좌익수가 있는 광주, 전주, 대전, 대구 교도소에 배치. 교무과장을 반장으로, 교무과 지도하에 전향공작 업무를 진행했다.

강신석

SOV)한가지 놀랄만한, 사람이 그렇게 악랄하고 악독할 수 있을까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겨울에 눈이 오는데 눈이 북도에 하얗게 쌓여 이상하다 위에를 쳐다봤더니 지붕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비가 올 때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는 들어오지 않아 그러나 북쪽에서 눈이 올 때는 다 들어오게 돼 있어 열려가지고 정말 놀랐어 얼마나 춥습니까

안학섭

SOV)12월 크리스마스 무렵인데, 12월이면 몹시 추울 때. 방에 뒷문 창문 다 떼어 놓고 시찰구 다 떼어 놓고 방에 물 뿌리면 얼어 거기다가 광목 이런 거 아래 위에 한 벌 줘요. 한 벌 주고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r그래 얼음 위에서 자는 거지. 거기 집어넣어 놓고 내가 1주일만에 얼어버렸어

창 열리고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전향공작이란 이름으로 벌어졌다.

양희철

SOV)자기들이 직접 매를 드는 것은 좀 더 자중했던 것 같애, 매드는 것은. 재소자, 요즘 부르는 말로 떡봉이라 합니다.

안학섭

SOV)간수는 입회 안해요. (같은 수행자였던?) 개들 아까 이름 부른 개들이 떡봉이라는 완장을 붙였더라구요

김영식

SOV)떡봉이들이 어머니 사랑몽치 야구방망이 만한 걸 어머니 사랑몽치라 그러고, 여기다가 떡봉이라고 탁 붙였어. 그리고는 와가지고서는 그냥 너 나와 해서는 얹어놓고 사정없이 막 때리

삼화

는 거예요.

흉악범이나 폭력 전과가 있는 재소자들의 살인적인 고문이 시작됐다.

서준식

SOV)대전같은 경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흉악범을 두사람 세사람 정도 방에 넣어놓고 거기다가 한 사람 집어넣는 이것으로 전향을 안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다 전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SOV)너 왜 눈동자를 돌려 허구서 너 나와 하구서 또 때리구 그 담에 너 식구통에 손 내놔 하며 그 뭐냐 어머니 사랑몽치로 사정없이 때리고 그래도 전향들을 안 하거든 이렇게 해도 전향을 안해 이렇게 괴롭히면 전향을 할 줄 알았는데 전향을 안해 아 그담에는 물고문에 들어갔잖아 SOV)처음엔 물을 먹어서 머리가 빠그러지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발이 저려와 그리고 그게 탁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후엔 의식을 잃어, 의식을 잃으면 클러 놓고 배 누르고 그래서 물 토하면 찬물 끼얹어 또 갔다가 묶어 놓고 4개까지 최고로 먹을 땐 한 번 나가서 4개까지 먹어 봤어 32리터? 그렇게 고문하고 그 때 그 물고문 처음 시작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루 9명이 전향서를 쓰고 나갔습니다

안학섭

SOV)뒤에 수정을 세 개 차고 뽕뽕 묶어요. 묶고 매답니다. 그리고 뽕 돌리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느냐. 너 전향하라 전향하면 다 풀어준다. 여기에서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위 그 자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양희철

서준식

SOV)그 두 명이 일과가 끝나면서 무시무시한 공갈을 놓고 가는 거죠. 너 아까 전향한다고 그랬다. 내일 만약에 딱 소리하면 너 진짜로 죽여 버리겠다. 물 먹이고 죽여버리겠다. 그날 밤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겨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유리조각 갖고 숨겨 놓은 걸로 손목을 끊었죠. 몸에 유리조각으로 유서를 새겼습니

다. 2백자 정도. 몸에다 새겼습니다. 종이가 없고 연필도 없고 그냥 죽기 억울하지 않습니까 ...

서준식 법정 화면

재일동포 2세인 서준식.  
그는 71년 서울대 재학 중, 형 서승과 함께 재일동포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구속되어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전향을 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결심.  
그것은 분노에서 나왔다.

서준식

SOV)물론 전향할 생각을 수 없이 했습니다. 저 도 수 없이, 무엇보다도 가족과 같이 살고 싶었고, 밖에서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저로 하여금 전향을 하지 않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테러를 하고 굉장히 비열한 방법으로 저하고 어머니를 갈라 놓고 전향공작 한답시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는 힘은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니라 얼마나 비열한 짓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얼마나 이를 가느냐. 이것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VIDEO AUDIO <5>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포스터

목숨을 담보로 진행됐던 전향공작.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증언에 따르면 11명 공식적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사망자는 5명이다.

철판-->할배들 얘기하고

대부분의 증거 수집은 전향공작을 경험한 좌익수들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박용서 관련 서류

재소자의 구타와 폭행, 강제급식 등이 사망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가해자의 증언 없이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

김형태  
법무부

SOV)국가기관인..개연성은 있다는 거죠  
SOV)그 당시 담당이었던...없습니다.

전향자 CG

73년 400명에 달하던 비전향 좌익수가 75년에는 그 절반인 200명으로 줄었다. 어떤 강제도 없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000

SOV)(\*\*교도소에서 당시 많은 분이 전향을 하셨는데 전부 대화에 의한 권유로 전향하신 겁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 분들이 말로 하면 다 전향을 하세요?) 민주화 교육에 의해서, 교육,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민주화 교육인데 어떻게 폭행을 합니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카운셀링, 상담에 의해서 전향을 시킨 것이죠.

서준식

SOV)이 사람은 한 번 화가 나고 흥분하면 앞 뒤를 못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상한 성격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000 하면 새 디스트다 이런 얘길 했습니다.

000

SOV)어떤 나쁜 놈이 그런 소리를 해요? (사실 무근입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화시키는 교육 아닙니까? 강제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보안과 계통이지, 우리 교무과 계통이 아닙니다. 거실 관계는.

백00

백00 전라 교무과 2차 근무

SOV)만일 보안과에서 교무과에서 하고자하는 일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든지, 전향공작 필요한 일을 거절을 했다든지 또, 전향공작 대상인 재소자를 보안과에서 잘못 다뤘다든지 할 적에는 그때는 우리가 경치죠. 보안과에서. (경친다 하시면?) 중앙정보부에서 실책이 안 있겠습니까? 보안과에서 이러니 우리 전향공작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일하기가

안학섭

SOV)제가 그 사람들...그래요

백00

SOV)그 때는 중앙정보부지 아마? 중앙정보부 대전분실에서 그 업무를 주관을 하고요. 중앙정보부에서 교무과에다가 전향공작반이라는 걸 두어서 공작반 중에서는 고도의 전향공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관들이 있

서준식

있어요. (교회관이요?) 네  
SOV)이런 팀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테러를 주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깡패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다들  
자기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동료 교회사  
들도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를 때렸  
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중앙정보부

당시, 모든 좌익 관련 활동을  
담당했던 중앙정보부.  
관련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법무부 예규에서도 전향공작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VIDEO	AUDIO	<6>
배00	SOV)교무과에서는 말이죠. 전향공작을 전담하면 서 전향공작을 해 가지고 수고하는 데 대해서는 정보부에서 어떤 대가가 있었을 거예요. (돈을 받았던 말입니까?) 돈을 받았거나 뭔가 그게 있 었을 겁니다. 전향공작비라해서	
서옥렬	SOV)교회사들이 점수를 받아가지고 승진도 빠 르고 또 상여금인가 보상금도 받고 (사실입니 까? 제가 통화한 몇 교회사 분들은 그런 일 없 다는데) 사실이냐 자기들 입에서 나온 건데...입 에서 나온 건데	
김영식	SOV)아이, 그런 분들이 물고문 안 한다니까, 사 회에서 살인 강도로 들어와가지고 무기질역 받 은 사람이야 너 사람 몇 물고문해서 빼내라 빼 내면 너 가출옥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정없이 하 는 거야 그냥 인정사정 없이 우릴 죽는 한이 있 어도 전향시켜서 자기 나갈라고	
000	SOV)그때 당시에 **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무한 사람들은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접 두드려 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존속 폭행인가 해서 들어온 사람이	

남북적십자 회담(18)

있어요. (재소자요?) 네. 그 사람이 그때 7년인가  
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사동 청소부로 나와있었  
어요. 그 사람을 주로 이용해서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재소자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건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위법이죠

7.4 남북 공동 성명과 적십자 회담의 성사.

정전 후 처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 공존을 약속한 시기였다.  
굳이 이런 때 국가적 차원에서  
좌익수들을 탄압할 까닭이 없었다.

이일재

SOV)72년 남북 공동성명 이후, 그 때는 이번  
6.15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감격적이었어요. 특히,  
좌익사건 내지 북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의 가족,  
그 주위의 사람들은 아주 감격적이었어요 이제  
모두 다 교환되든지, 석방돼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배신당한 거예요.

7.9 공작비  
기여, \* \*

안학섭

SOV)죽여도 죽여도 좋으니까 뭐 말은 그래요  
어떻게 죽여도 좋으니까 일을 하다보면 죽을 수  
도 있지 않냐 어떻게 해봐라 전향. 우리나라에는  
사상범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라 그랬다 해요 박  
정희가 그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사상범 없애  
반공부

박정희 손 흔드는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숨어 있었다.  
경제 개발과 이데올로기전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의 싸움.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긴 좌익수 숫자는  
중요한 지표였다.

이일재

SOV)일종의 이데올로기 전에 있어서 우위를 차  
지한다 이거야. 특히, 북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이  
이쪽 사회를 보고 사상을 전향했다 하면 그러면  
이쪽의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우위에 서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된 목적인 것 같고

반공응변 대회

// 반공, 방첩의 구호 아래

은 국민이 한 마음으로 단결하던 시대.  
간첩은 인간이 아니라  
때려잡고 뿌리뽑아야 할 대상이었다.

\*\*\*

SOV)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반공을 국시로 삼고 나라 전체가 똘똘 뭉쳐서 그걸 이루고자 한 게 아닙니까? 그런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향공작반들이 좀 무리한 행동을 해서 전향공작을 해보려고 했다. 전향공작하면 그 사람들 죽이는 겁니까?

신학운

SOV)월남이 패망하면서, 극동이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불안했었고, 또 출소자의 약 500명 정도가 그 당시 출소할, 미전향으로 출소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과반수 이상이 약 한 500명 정도가 출소를 한다면 우리 사회가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법사위 모습

4.19 때, 감형 조치를 받은 많은 죄역수들이 70년대 초반, 풀려날 상황이었다. 이들을 통제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고 1975년, 사회안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VIDEO AUDIO <7>

서준식

SOV)전쟁때 부역을 했거나, 빨치산 활동을 한 사람들. 4.19 후에 무기징역을 받았다해도 4.19후에 유기형으로 감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70년대 초에 나가게 되는데 내보내지 않으려고 만든 제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조치가 첫 번째로 전향공작이었고 두 번째로 그 전향 공작도 견디 낸 사람에게는 사회안전법이란 제도를 만든거죠

사회안전법안

죄 값을 다 치르고 출소한 뒤라도  
재범의 현저한 위험이 있는 사람은

서준식

사회안전법으로 다시 구금할 수 있었다.

SOV)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분간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근거 이것은 오로지 전향서를 쓰느냐 마느냐 여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전향이란 제도가 꼭 필요했던 거고 전향이란 제도를 없애면 사회안전법 같은 제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텃밭의 임방규

빨치산 활동으로 20년형을 산 임방규.  
출소 후, 신혼살림을 차리고 있을 때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 비전향이 이유였다.

임방규

SOV)저 사람하고 들어가기 전에, 5개월 전에 결혼을 했거든. 가정도 꾸리고 살고 있는데, 또 갖다가 집어넣었던 말입니다. 감옥이 어떤 곳인데, 감옥은 이승의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사람을 넣어 놓고 그것도 형기를 다 마친 이혼대 2년 갱신 2년 갱신해서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살리는 거 죽을 때까지 살리는 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나

법안 2년 갱신

사회 안전법의 최고 단계인 보안감호처분.  
형 집행 기간은 2년이었지만  
재판 없이도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다.  
범죄 예방차원에서 가둬두는 감호소가  
시설이나 대우면에서  
교도소와 다를 바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서준식

SOV) 한 8년 쯤 살았을 때도저히 가망이 없단 여기서 죽게 될 거 같아 그런 생각으로 단식 투쟁한 적 있습니다. 나를 내보내라 사회안전법을 폐지하라 그 때는 소송을 여러번 해서 여러번 기각 당하고 여러번 패소하고 거의 절망적 그때 이대로 계속있을 바에야 굶어죽어도 마찬가지다 생각으로 50일하고 한끼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바로 직후에 6월 항쟁이 일어난 거죠



87년 6월 항쟁

87년 6월, 전국을 휩쓴 민주화 운동으로 서준식은 전향하지 않고 석방될 수 있었다.

강신옥

SOV)그런데 만기출소가 될 때쯤, 소위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이 유신 긴급조치 시대 때 통과되어서, 만기를 채우고도 단순히 전향서를 TM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씩 5번이나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강신옥 말하는 얼굴

서준식 출소를 계기로 전향제도와 사회안전법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고

노태우

SOV)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중, 비민주적인 조항은 개정하고 비민주적인 제도와 관행은 앞장 서서 개선 정비하겠습니다

VIDEO

AUDIO

<8>

서준식 V자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지만 서준식의 인권운동은 계속되었다.  
아직 교도소에는 많은 비전향 좌익수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강용주

SOV)그리고 제가 이감갔던 86년돈데 이감을 가니까, 대전교도소 15사가 특별사거든요. 거기가서 첫 느낌이 뭐냐하면 이걸 남골당인 거예요. 그 많은 팔십 명이 사는 데 한 층에 삼층으로 된 건물에 사는데 그 삼층에서 사람 소리가 하 나도 안들려요.

대전교도소

//80년대 후반, 대전 교도소에는 70여명의 비전향 좌익수가 모여있었는데 특별 사동에서 독거 생활을 하는 상황.

신문자료

전남대 의대 재학 중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용주. 그가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처음 접한 전향 문제는 큰 충격이었다.

강용주

SOV)당신 전향해라당신 전향해라 전향하면 수술시켜줄게 전향안하면 수술 안 시켜준다 그대로 죽어라. 그분이 나는 전향 못한다고 버텼어요 그러니까 결국 혼수상태에 빠져서 병사로 옮겨 병사에 있다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그 전향을 안했다 해서 한 인간을 위암에 걸린 사람을 치료도 안하고 내보내지도 않고 니 전향 안하면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야 빨갱이들 너저들 전향 안한다고 전향 안 할 거 같애 최주백이봐라 전향했어 죽기전에 다 전향하고 죽었어 그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한테 여 기다 묵인찍어 가지고 인주 발라가지고 전향서에 도장찍은 거예요.

헌법소원 의견서

1992년 헌법소원

교도소에 등장한 젊은 사상범들은 비전향 좌익수 42명과 함께 1992년 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한다.

강용주

SOV)양심의 자유는 실천할 수 있는 자유는 제약하더라도 갖고 있는 자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침해하고 있는 거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근대국가의 이름을 거는 나라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는 없어요. 있다면 저는 아직, 징역만 사랑 모르는데, 저는 이 나라에 14년 동안 내 겪어왔던 건 그거였어요. 양심의 자유는 침해당하는 거다라고

메모

이종걸

SOV)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분들에는 한 30년간 외부의 사람을 처음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은 말을 거의 잊어버리신 내

부에서 말을 많이 안 하시니까 말하자면 말의 도구 입은 있어도 언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30여년간 정체되어 있었던 분도 있고 해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런 밖에서의 도움에 대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던 분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법무부령 111호

비전향을 이유로 재소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급외 판정. 이 법적 차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박원순

SOV)전향제도를 법률적으로 합법화시키는 것 그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들이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수용자 분류처우규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차별이 된다는 것은 그건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인 이런 양심의 자유에 본질적으로 위반된다고 저희들은 봤구요. 모든 법률가가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VIDEO AUDIO <9>

헌법 재판소

1995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기각. 전향제도가 위법이나 아니냐의 판단은 유보한 채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된 것이다.

강용주

SOV)저는 헌법 소원을 냈을 때 우리 사회에서 헌법 소원을 양심의 자유를 위배된다 이거를 저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질 않았어요 우리 사회가 무슨 인권이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도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근데, 유엔에다가 개인통보를 내려면 그 나라에서 밟을 수 있는 모든 구체적 차를 밟아도 안 됐을 때 낼 수 있거든요

유엔 인권이사회

1990년 한국은 UN인권규약에 가입했고 92년 열린 인권 이사회에서는 이미 전향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조용환

SOV)그래서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그 전향제도에 대한 많은 질문이 나왔지요 그때 참 정부는 전향제도가 범법자들에게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선량한 시민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박수길

SOV)그때만 하더라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도 한국 평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이거 다 바꿀 것이다. 다만 남북 간의 대치 현황에 비추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개정을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김선명 그림

장기 구금 양심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권의식의 성장은 전향제도와 변화를 예고했다.

박상천 발표

SOV)법무부는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하였다

반대 테모

전향제를 준법서약제로 대체한다는 정부 발표는 예상 밖의 반발을 불러왔다.

박상천

SOV)사면을 해주고 가석방을 해주고 해서 대법원이 확정해 놓은 형을 줄여서 해줄라 그럴 때에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없이 어떤 사람은 줄여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줄여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물어보는 제도예요 근데 그것도 물어보지 마란 말이에요? 만일 물어보지 않고 풀어줘서 또 범법행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강용주

SOV)준법서약서를 안썼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반정부활동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그러니까 못 내보내겠다는 게

양희철

정부 논리였지 않습니까 준법서약서 안 썼다는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추측되지, 주축되고 그 추측한 데 기초를 해서 차별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해요 이게 상식이예요.

SOV)준법서약서 자체는 일종의 무형의 폭력이다. 강제, 즉 강제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써야만 내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린 거부한 겁니다

조용환

SOV)99년에99년에 휴먼라이스니티 인권이사회라고 하는 국제기관에서 이 준법서약 제도도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다 폐지 해라 권고를 한 바가 있거든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전향제도나 준법서약 제도는 둘 다 잘못된 제도다. 하나의 잘못된 제도를 정도가 덜할지 모르지만 또다른 잘못된 제도로 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는 특히 김대중정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99년 사면, 우용각 보이고

99년, ~~준법서약서를 거부하며~~ 끝까지 감옥에 남아있던 비전향 좌익수 17명이 사면되었다. 하지만, 전향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다.

만세 부르고 나서

VIDEO AUDIO <10>

김영식 보이고

88년 출소 이후 지금까지 김영식은 ~~보안관찰 대상이다.~~ 남쪽에 피붙이 하나 없는 그가 사회에 나와 처음 정착한 곳은 갯생원. 그곳에서 당한 일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김영식

SOV)갯생보호서 정원의 가운데가 비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별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거기다가 별 꽃을 딱 만들어놨어. 그런데 그것이 이복기를 상징한 것이다라고 자꾸 취조하고 그러니, 버전 같으면 뒤집어라도 보겠는데, 버전같지도 못하고, 참 딱한 사정이 있었어요

지하철 타는 김영식

속마음이 버전 같다면 뒤집어라도 보겠지만 사람이 품은 생각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자리에 앉고

증명할 수도 없는 생각을 바꾸라고, 전향하라고 죽지 않을 만큼 고문하더니 전향을 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위험인물일 뿐이다.

손에서--> 얼굴로

## 4. 섭외리스트

전향공작 관련 섭외리스트

장기수			
권낙기(非)	통역당	광주교도소, 18년	011-896-3452(통일광장)
임방규(非)	빨치산	대전 전주, 청주감호소, 37년	011-9830-2668(자택)
안학섭(非)	남파	광주, 대전교도소 복송포기	888-6231(우리)
서순정	빨치산		823-8980(자택)
박종린	남파	대구교도소 34년	016-240-3954(한백)
		* 오택한 목사(무안) - S.K or 자료(박준우)	
양희철(非)	남파	36년, 복송포기	011-9715-7398(우리)
김영식	남파	서대문, 광주교도소, 26년	888-4350(만남)
신현철(非)	남파	89년 출소, 98.8 말誌 기고	031-914-7727
정순덕	빨치산	대구, 공주, 대전교도소 23년	인천 나자렛 병원 032-435-5111*3
서준식(非)	국보법	3675-5363(인권운동연구소)	사랑방 741-5363
정순택	남파	31년	(청주)043-214-4066
서옥렬	남파	대전교도소	(광주)062-266-0698
교도소 처우 문제			
김대수			(울산)053-744-2023
정성수		광주,청주,서울구치소 근무. 서울구치소민주교도관 모임	017-357-2978/3664-2978
한재동	양심적인 교도관		019-353-1725
신직수	당시 법무부장관 (71.6-73.12)	현재 간암투병 중 (73년12월-76년12월: 중앙정보부장)	547-1227
이종원	당시 법무부 교정국장		756-1221(사무실) / 794-2330(집)
법무부 교정국장	현재		503-7009
헌법소원			
박원순	사건 담당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723-5300
이종걸	사건 담당 변호사	헌 16대 국회의원	국회 784-5035 지구당 031-449-7006
장의균	87년 유학생 재야침투 간첩사건으로 수감	95.8.5 만기출소 www.noree.com	* 전향하면 재심기회 박탈. 사건 조작 은폐 수단 011-9641-3035
헌법관련			
강경선	방통대 교수(헌법학 교수)		011-9084-3894
UN 인권위			
조용환	UN인권이사회 자료 제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3430-4330
천정배	UN인권이사회 참관		사무실 031-410-3777 / 788-3512 자택 031-411-7566
박윤훈	사회안전법 정부입장 옹호(법제월보 75년 8월)	前 대구대 총장	923-0863(집)
유국현	당시 법무부 인권과장		3703-1114(사무실) 3703-1193(이정훈)
준법서약서			
강용주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광주, 청주 14년	018-604-7777
박상천	1998년 법무부 장관	헌 16대 국회의원	사무실 788-2360 자택 3775-1233
복송 관련			
권오현	장기수복송추진위원회대표		017-260-3333
참고인			
함세웅	신부	광주교도소	홍상운 선배 팀
강신성	목사	광주교도소	011-606-6630 / 062-376-7774
양승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향공작 관련 섭외리스트-

청주			
정순택	남파	"보안관찰자의 꿈"(97년)	043-214-4066
대전			
신학운	교회사	중정 출신. 現 대전교도소 교무과장	(대전교도소)042-544-9301(601)
강석봉	강치과	대전역앞 문화동	042-226-2875
김복술	교회사, 대전교도소	교회 장로. 바늘 고문 / 대전유성 지족동 열매마을 아파트 7단지 706동 1104호	042-476-8042
김치연	대전교도소 교무과장	대전 목동교회에서 교회 일. 목원대학 대학원	현재 일본 체류 중
전주			
강철형	교무과장, 최고 악질	전북 정읍시 교부면 만수리 관음사 주지	(정읍)063-536-0772
한윤덕	교회관, 광주교도소	연회전문 출신. 전주 덕진 진북2-322	063-251-2675
한상열	목사	전주 교백교회 목사(김영식 관련)	011-9695-3131/063-282-8192
고대유	전향.	전주 완산 서환산동 2가	063-283-7146
주인식	반공법 위반. 84세	5/7 청와대 진정	063-841-0340
			016-325-5534(황세연)
광주			
강용주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준법서약서 관련	018-604-7777
정일봉	교회사	북구 두암동59-20 미라보아파트 102동 504호	062-262-7502
서옥렬	남파	광주시 북구 각화동 주공아파트 101동-1108호	062-266-0698
강신석	목사	광주교도소	062-376-7774 / 011-606-6630
목포			
김영수	교회사	목포 용해동 교회 목사	011-9441-0071
대구			
이일재		민주노총	053-791-5406/553-9063/254-3471
김대수			053-744-2023 / 018-506-2023
배응찬	대전교도소 부소장	서북청년단 출신. 87년 대전교도소 소장으로 정년퇴직. 중풍으로 반신불수. 동덕2동 효성타운 103동 202호	053-472-7721 / 011-9820-7721
문승호?	교회관	대구 교무과장, 퇴임	
기타			
정무종	떡봉이, 광주교도소	떡봉 완장. 초록색 바탕에 흰 글씨	
원삼실	떡봉이, 광주교도소		
박영관	법무부 검찰 1과 복수부장		530-3114
김하기	소설가	완전한 만남	
조 국	동국대 교수	사노맹 관련 수감. 思想의 자유에 대해서	2260-3590(연구실) 6479-7179(주택)/011-559-7179
남규선	민가협		763-2606/017-238-3300
푸른영상	복숭장기수 취재	정창영PD	823-9124/017-274-4150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72년까지 6700명에 이르던 비전향 장기수가 23년에 걸친 무차별적인 전향공작으로 약 100여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교도당국의 전향공작뒤에는 법무부와 중앙정보부가 있었다" "73~75년사이의 전향공작은 몇몇 교도소에서만 생긴 일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치밀한 인권유린 사건"	011-9731-8791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책'한국과 분단사회'	사상범에 대한 전향공작만큼 어떠한 법조문이나 기록물에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자아내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통제체계는 없었을 것	
고성화	장기수.	하귀2리 1205번지	064-713-5189
김동수	장기수.	88년12월 출소. 남한에 남기로. 부산 거주. 74년 1월 전향했지만 88년에 출소.	부산 사상구 모차3동 주공 312-1406 / 051-304-6198
김재현	이중간첩. 육사8기	김영식 선생과 면식	
강종건	사회안전법 수감	1983년 보안감호처분기간 갱신처분 무효소송 제기. 84년 12월 승소했지만, 법무부는 무시하고 보안감호처분 2년 더 갱신. 결국 88년 6월 석방. 483-9390(회사) 427-7045(집)	
김병진		"보안사" 소나무 1988. 저자	남한 짜장면값 얘기 국가기밀누설
김용기	정부보고서 관련.	당시 인권과 검사	011-230-6633/535-1405
한옥신(死)		思想犯罪의 實證的 研究. 부논문 : ① 反共法의 基本課題에 대한 연구 / 동국대박사	

전향공작 관련 섭외리스트-

김치연 : 대전 대구 전주 청주를 돌며 1050명의 좌익수 전향시킨 공로로 84년 법무부로부터 교정대상 교화부문 수상  
배응찬 : 85년 대전교도소장으로 부임. 처우 악화. 강제급식(소금물 고문 자행).

광주교도소 73년 10월 비전향장기수 64명 / 73-74년 5월 39명 전향			
강철형(73년)	교무과장	전북 정읍시 교부면 만수리 관음사 주지	(정읍)063-536-0772
한윤덕	교회관	연회전문 출신	
문승호	교회관	대구 교무과장, 퇴임	
김무용(김무용)	교회관		
정일봉	교회사		(광주)062-262-7502
이규연	교회사	악질	
김영수	교회사	목포 용해동 교회 목사	(목포)011-9441-0071
신학운	교회사	現 대전교도소 교무과장	
김봉운	교회사		
최한주	교회사		
박종호	교회사		
정무종	재소자		
원삼실	재소자		
김홍렬(75년)	교무과전담반		
문성호	교무과전담반		
전호찬	재소자		
이건종	재소자		
전주교도소			
한상열	목사	전주 교백교회 목사(김영식 관련)	011-9695-3131/063-282-8192
대전교도소			
배응찬	부소장	서북청년단 출신	
김치연	교무과장		
나석규(死)	전담과장		
박왕중(死)	전담과장	중정 출신. 고문에 직접 가담(서준식)	
김진섭	보안과동원담당		
이동호	보안과동원담당		
최만부	보안과동원담당		
김복술	보안과동원담당		
신학운	교회사. 국민대출신		
장원범	교회사. 중정 출신		
양준식	교회사. 광주교도소 출신		
이돈웅(死)	재소자	* 구타로 최석기 선생 사망케	
조석환	재소자		
고영재	재소자		
김기웅	재소자		
갈가리	재소자		
조병길	재소자	*안영기 선생 무차별 구타 전향케	
이동균(86년)	보안과8급교사		
대구교도소			
변영균	교무과장		
장원범	교회관, 중정출신		
청주보안감호소			
오기수	감호과장		
최종대	교사		
박종호	교회사		

\* 의문사 조사

박용서(74년 대전)

손운규(76년 대구)

최석기(74년 대전)

변형만(80년 청주보안감호소)

김용성(80년 청주보안감호소)

## 5. 촬영 계획서

## 권낙기씨 촬영스케줄

위치

-연신내역에서 구파발쪽으로 가다가 두 번째 신호등에서 조흥은행 쪽으로 좌회전해서 쪽 올라오면 3거리가 나오고 거기 신호등에서 좌회전. 버스 종점 앞 신호등에서 우회전 바다약국끼고 우회전하면 현대아파트 나오는데 그 근처에서 전화해달라고. 집은 정원 넓은 단독주택.

연락처

011-896-3452

-집에는 권낙기씨 어머니와 딸 둘.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애는 1학년. 부인은 폐암으로 석달 전 사망.

-통일혁명당사건에 연루돼 1972년부터 1989년까지 18년을 복역

부인인 이옥순씨는 섬유공장 여공 출신으로, 서노련의장 권한대행을 지낸 '골수 노동운동가' 였다. 90년 수배중이던 그녀는 비전향장기수를 위한 후원기관인 서울 구로동 '만남의 집' 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권씨는 거기서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네번째 만남 날 권씨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91년 3월1일 결혼식에서 비전향장기수 신랑과 노동운동가 신부가 다짐한 약속은 참으로 소박했다. "10년 안에 아담한 집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범한 사람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려봅시다."

한약재 도매업에 뛰어든 권씨는 98년 서울 은평구의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7.5평 쪽방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지 8년 만이었다. 이씨는 두 딸을 기르며 권씨를 조용히 내조해 왔다. 권씨 부부는 고령의 비전향장기수들을 돕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이씨를 "우리 며느리" 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들의 단란한 삶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이씨는 기침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말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퇴원을 권하며 "6개월을 넘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권씨에게 복송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병상의 아내에게 "북으로 가는 그들이 그리워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쾌유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보냈다는 선물들을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나는 양과 함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을 함께 받았다" 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 권씨 부부에게 찾아온 두번째 변화였다.

지난해 7월8일 권씨가 아내의 회복을 바라는 뜻에서 마련한 모임엔 1000여명의 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노동운동을 하며 이씨와 동고동락했던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유시민씨, 단병호 민주노총의장 등 수많은 인사들이 이씨를 만나기 위해 달려왔다. 전국연합, 인천연합은 매일 2명의 회원을 이씨에게 보내 그녀를 간병토록 했다.

지난해 9월9일 이씨는 북한측의 초청을 받아 방북했다. 평양에 있던 비전향장기수들이 모두 나와 그녀와 재회했다. 복송 직전 치료비에 보태라며 남한에서 모은 돈을 권씨 부부에게 주고 간 그들이었다. 북한당국은 서울로 돌아가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다. 1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장명' '경옥고' 라는 약이었다. 버섯, 인삼, 꿀 등으로 만든 북한의 유명한 전통 암치료제라고 한다. 돌아오는 길, 이씨는 전국농민회 경남도연맹 간부 김모씨가 암투병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이 약을 꼭 때 주었다.



암 선고 후 6개월이 훨씬 지난 요즘, 아내가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에 권낙기씨는 크게 고무돼 있었다. 그는 아내의 목소리와 눈빛이 점점 더 맑아지고 있다며 아내와 함께 웃어 보였다.

그러나 권씨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이씨는 3시간 동안의 인터뷰 내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어떻게 얻은 행복인데... 투옥, 고문, 도피, 지독한 가난으로 점철된 우리 두 사람의 40년 세월이 너무 한스러워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남편, 세상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들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2001년 2월 28일 주간 동아>

아버지 권양섭씨

1917. 경북 봉화군 출생

1935. 1년 6개월 정도 감옥생활

(1930년 전북 교원노조 사건에 연루된 사촌형이 중국으로 갔다가 35년 국내로 들어오면서 함께 감옥생활을 함)

1938. 청진에서 2년 반정도 트럭운전

1942. 결혼 후 만주활동

1946.11. 남조선 노동당 합당대회 대의원 참가. 평양으로 감

1948.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참가. 체포. 4년형 대구형무소 수감

1953. 출감

1972. 체포. 경상도 통혁당 사건 '일명 유위화 사건' 첫째 낙기, 둘째 재기. 여동생, 제수씨, 셋째 문기, 넷째 충기 함께 연행. 옥살이

1993. 3. 6 형집행정지로 석방

1997. 3.18 80세의 나이로 별세

@ 가족관계 - 미망인 조낙귀씨, 큰 며느리 이옥순씨, 큰 아들 권낙기 손녀딸 다정씨. 다인이

질문 사항

1. 수감 교도소와 이감된 해. 사건명.

아버지 권양섭씨로 인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식의 억울함은 없는지?

2. 18년을 복역하는 동안 왜 전향하지 않았나?

3. 전향공작의 구체적인 사례는(73년에서 78년 사이 극심했던 상황들)?

4. 교도소에서의 처우는 어떠했는지? (74년 광주교도소에서 순시 나온 보안 과장에게 면회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구타를 당함. 28일 간 소장 접견을 요구하며 단식한 끝에 소장 면회 가능-접견시 무슨 얘길?)

5. 언제까지 보안관찰법 대상이었나? 보안관찰법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91년 3월 1일 결혼식 등)

6. 같이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수감 중 전향공작에 의해 사망한 사람-자살, 타살-이 있었나? (70년대 광주교도소 옥중사망자 : 변치수, 정순직, 이영호, 장한영 임창규, 현명원, 이동근, 박윤영씨 등)

7. 장기수 어르신들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장기수 어르신들은 최근 어떠한 생활을 하고 계시나?

8. 처음에 비전향자를 위주로 통일광장 모임을 만드신 걸로 안다. 이로 인해 전향자에게는 오해가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또한 비전향자와 전향자 사이에 놓여있는 벽이 클 듯 싶은데 이 또한 전향제도가 사람을 이간시키는 제도임에 기인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9. 생계는 무얼로?

10. 딸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은가?

11. 아버지 권양섭씨에 대한 기억 (97년 옥고 후유증으로 별세)

12. 아내 이옥순씨에 대한 추억

13.님은 소위 남파 간첩까지도 통일일꾼이라고 하셨는데,님이 생각하시는 통일운동이란?

2001. 6월 27일 (수) 2시

위치

봉천 6동 미술고등학교 앞 만남의 집. 우리탕제원에 미리 놀러오겠다고 하시네요.

연락처

888-4350

질문 사항

1. 전향 철회 양심선언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2. 전향서를 쓸 때의 상황은, 전향서는 어떻게 생겼나, 무엇을 기재하나?
3. 전향 고문 중 잊을 수 없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때 고문했던 농도 기억하는지?
4. 전향 후에는 뭐가 달라졌나, 왜 전향하고도 곧 나올 수가 없었나? (서순정씨의 말로는 전향을 했어도 만기를 채워야지 나올 수 있다고)
5. 전향서를 쓴 후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과 꺾끄럽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죄책감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6. 다들 복송되고 혼자 남으셨는데, 매우 쓸쓸하실 것 같다. 6.15 선언 1주년이 지나고도, 아직 복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바람이 있다면?
7. 북에 가족이 있는가, 혹시 가족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지?
8. 여전히 북한이 남한보다 나은 사회라고 생각하나, 사람들은 굶어죽고 있다는데?
9. 출소한 후 생활은 어떠했나?
10. 전향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11. 통일 운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님이 생각하시는 통일 조국은 어떠한 모습이길 바라는지?

2001년 6월 27일 (수)

우리탕제원

-봉천고개 넘어서, 서울대 지하철역과 낙성대 역을 지나, 사당 고개 넘기 보면 우측으로 봉천 11동 사무소, 인현중고, 기업은행 표지판 서있는 길이 있는데, 그 쪽으로 300m 쯤 들어가면 기업은행이 나오는데 기업은행을 앞으로 두고 우측으로 꺾으면 마을버스 길이 나오고 그 쪽으로 들어가면 크게 윤가네 먹골 간판이 보인다고 함. 그 건물 3층 우리탕제원. 나무 간판에 한글로 써있음.

3층은 탕제원으로 쓰고, 2층은 안학섭씨가 내실로 쓰고 있음. 그러나 부인은 피아노 가르치러가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함.

감옥내에서 약을 보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책을 보며 한방기술을 익혔다고, 양희철씨는 직접 침도 놓는데, 그것도 감옥에서 스스로의 몸을 모르모트 삼아 직접 침을 놓아가며 익힌 기술이라고 함.

안학섭

1930. 4. 7 강화도 출생

1950. 6 개성중학교 재학 중 전쟁으로 고향에 돌아와 민청에서 활동

1950년 인민국 후퇴한 뒤 강동정치학원에 입학

1953년 빨치산으로 청옥산에 위치한 강원도당을 찾아가다 체포. 군법회의에서 무기형을 선고 받음

1995.8.15 형집행 정지로 석방

2000. 5 현재 봉천동 '우리탕제원'에서 공동체 생활

미혼, 가족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형님이 있다

2000년 8월 4일 「MBC 스페셜 떠나는자와 남는자 비전향장기수의 선택」에서 안학섭씨 결혼식 촬영

<MBC 스페셜 안학섭씨 관련 부분>

강화가는 길

수박 들고 부부 형 집으로

남쪽에 남기로 한 사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안학섭 부부가 고향에 인사가는 길..

(\* 들어서고 형수 인사하고)

지금이야 반가운 대접을 받지만

밖푸는 형수 7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식사하는 가족 24

43년이란 세월..  
하늘도 땅도 동정할만한 긴 감옥생활이었다  
그러나 정작 가족과 친지들은 동정하지 않았다 / 이른바 '빨갱이' 가족 탓에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도, 안학섭 본인 못지않게 컸기 때문이다

형 / 도민중에 부역자 가족~ 빨갱이란 증거이야 + 삼촌을 두고 두고 원망했지

산소에 절하는 세사람  
집안에 '빨갱이' 하나면  
일기천척까지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던 시절이었다 // 아버지는 돌아가실때까지도 안학섭을 <없는 자식> 취급했다

(\* 보여주고)

돌아선 형~ 부부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이데올로기로 인한 <상처>는 컸다  
그러나 그는 이땅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서 안학섭은 남쪽에 남기로 선택했다

안학섭 / 나 그냥 묵묵히 사람 사는 것 보여주고 싶어.. 4시에 일어나서 12시에 들어가는 취로 사업에 나가는 것 피곤해.. 그러나 죽을때까지 사람으로 다같은 사람으로 ( )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벌초하는 부부  
그의 나이 이미 71살  
이것이 그가 선택한 마지막 삶이자 가족들에게 내미는 화해의 손길인지도 모른다

### 국방경비법

뉴스플러스 1999/3/18  
"국방경비법은 유명법"  
"법령호수 없고 공포된 적도 없어"  
'여순사건' '한국전 학살' 등 억울한 피해자 수두룩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라인가. 만약 당신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법'에 의해 40여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1962년 1월20일 군형법이 나오기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에 대한 이야기다. 국가보안법의 전신격인 이 법은 특히 6·25전쟁 중에 위력을 떨쳤다. 이 법 제32조(이적행위), 제33조(간첩행위)에 해당하는 죄는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군법회의에 부여했고 단심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게 해 이 법에 의해 처형된 사람수는 추측조차 할 수 없다. 그저 4·3제주항쟁이나 여순사건, 한국전쟁중의 학살사건들에서 이 법이 막강한 힘을 발휘했으리라고 추정할 뿐이다.

문제는 '이 국방경비법이 법령호수도 없고 공포된 적도 없는 유명법'이라는 주장이 오늘날 제기되고 있다는 점. 국방경비법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모든 법령집에 예외없이 '1948년 7월5일 공포, 법령호수 미상,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로 돼 있지만,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이 법이 공포되기 전인 48년 5월19일 이미 해산됐으며 48년 7월5일에는 미군정 역시 어떤 법률도 공포한 일이 없다는 것.

법무부 "증거없지만 미군정때 공포했을것"

'국방경비법이 유명법'이란 주장을 맨 처음 제기한 사람은 법조계 원로인 유현석변호사(제일합동법률사무소). 지난 93년 무크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창간호에 실은 법조회고록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였다.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란 소제목으로 시작한 이 글은 국방경비법 말고도 과거 법제정이나 법적용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한국전쟁 당시부터 군법무관들 사이에서 '국방경비법은 근거없는 무효법률'이라는 말이 은밀히 떠돌아다녔다"는 게 당시 군법무장교로 일했던 그의 회고다. 그렇다고 이 법의 문제가 까마득한 과거사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다. 95년까지도 이 법에 의해 감옥살이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95년 세계 최장기수라는 기록을 안고 44년만에 석방된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74), 안학섭(69·42년 수형), 한장호씨(76·38년 수형)가 그들. 이 사실을 안 조용환변호사(덕수합동법률사무소)가 이들에 대한 접견을 시도하고 소송을 준비하던 지난 95년 8월15일 세 장기수는 전격 석방됐다.

이들이 석방된 뒤 조변호사가 벌인 소송은 모두 세가지. 우선 민사소송. '법률로 제정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수십년간 불법 감금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선명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각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이 재판은 아직도 1심 계류중이다. 둘째는 행정소송. 석방 뒤에도 국방경비법 적용에 따른 보안관찰에 처해진 김선명씨 등이 보안관찰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대응은 시간끌기였다. 2년마다 갱신되는 보안관찰처분 기간의 첫 2년을 재판도 없이 시간만 끌다가 각하한 것. 2기 보안관찰 기간에 다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2월초 대법원의 기각판결이 나왔다.

마지막은 98년 10월9일에 제기한 헌법소원. 국방경비법에 따라 형을 복역한 자는 국가보안법에 준해 보안관찰대상이 된다는 보안관찰법 부칙에 대해, 무효의 법에 의해 형을 산 사람에게 다시 보안관찰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헌법위반이란 소송이다.

국보법등의 모태 ... 국정조사권 발동해야

어찌됐건 수십년간 유지돼 온 '법통'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 문제제기에 대해 법무부나 법원측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도 법원도 국방경비법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국방경비법이 미군정법령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법무부는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국방경비법이 공포된 것은 사실인데 그 근거가 되는 관보를 찾지 못했을 뿐이며, 대한민국의 각종 법률이 국방경비법을 인용하고 있는 점, 법원이 아무런 의심없이 국방경비법을 적용했던 사실에 비추어 국방경비법이 미군정의 법령으로 공포된 사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과정에서 재판부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미 국방부와 국립문서보관소에 사실조회를 하자는 원고들의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가지 소송 중 유일하게 끝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지난 2월말 조용환변호사에게 송부된 판결문은 "국방경비법은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해

관련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효력발생일로 규정된 1948년 8월4일부터 실제로 시행돼 온 사실 및... 여러 정황에 비추어볼 때... 군정장관이 1948년 7월5일 자신의 직원에 의해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의 하나로 제정해 군정청 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공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한 것.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의 지난해 9월10일 판결은 '상당히 철학적인' 이유를 댔다. "국가의 기간조직이 미처 형성되기 전의 비상시기에 비상한 절차와 수단으로 법률이 제정돼 통용됐을 경우, 그에 대해 법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철학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적어도 그것이 오랫동안 일반국민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 승인돼 그 규범력을 인정받아 왔다면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비추어볼 때 이제 와서 수십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법률의 규범력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경경비법은 조변호사의 주장대로 '성문화된 관습형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죄형법정주의는 관습형법을 금하고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대단히 의아스러운 일은 마땅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이 문제가 학계나 법조계에서 아예 무시당하고 있다는 점. 이미 지난 일을 끄집어내 평지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분위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법이 아닌 관습 위에 서 있었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이 모래성 위에 서 있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고 법체계의 정당성을 세워 나가야 마땅하다"는 게 이 논란을 지켜본 민가협 남규선총무의 지적. 그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인다.

이같은 문제제기의 당사자인 조용환변호사는 "국방경비법은 결코 죽지 않았고 오늘날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대한민국의 여러 법률에 인용-계승되는 형태로 살아남아 있다"면서 "이제 진실규명의 길은 정부나 법원이 아닌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밖에 없는 것 같다. 만일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서영아 기자

## 양희철

1934.9.25 전북 장수군 계남면 가곡리에서 소작겸 자작농의 3남으로 출생

1945. 8. 해방 후 서울에 올라와 휘문중학교 다님

1953. 7 종전 이후 유리공장에서 일함.

1956 검정고시를 거쳐 고려대 상과대학에 입학

1957 부산 헌병대에 입대

제대 후 단국대학교 3학년에 편입

1960 4.19 이후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

1961. 3 북에서 내려온 큰 형과 함께 월북.

순안통일대학(교장 임춘추) 과정을 이수.

1961. 5. 16 남한에서 일어난 쿠데타 소식을 접함.

서철 부부장의 소련이나 체코 유학 권유를 뿌리치고 남으로 내려갈 것을 고집함.

1961. 7 남으로 돌아옴. 각 대학에 평화통일 지지세력을 만들기 위한 활동.

고대, 외국어대, 동국대, 경희대 등에 평화통일을 공감하는 학생들과 통일운동

1962 하반기 체포.

1963. 4. 24 구속. 서울지역 학생운동가들을 연행한 당국은 '양희철간첩단사건(고려대 지하당 사건)' 발표. 1심 사형, 2심 무기형

1999. 2. 25 형 집행정지로 출옥. 36년 복역

2000. 1 현재 서울 관악구 봉천7동 낙성대 근처에서 안학섭, 조창수 선생님 등과 우리탕 제원(전화 888-6231, 011-9715-7398)을 운영. 진료 및 침술 담당

2000. 1. 16 약사 김용심(36)씨와 결혼

<한겨레 2001년 6월 15일 >

'6·15선언' 한돌...장기수 양희철씨의 감회

"지난해에는 복송된 동료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 끊겨 안타깝습니다."

지난 1963년 남파됐다 붙잡혀 37년을 감옥에서 지낸 뒤 출소한 비전향장기수 양희철(67)씨.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인 15일 그는 "피붙이처럼 지내던 63명의 복송 장기수들의 얼굴이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남녘에 남은 가족 가운데는 북으로 간 이들이 보고 싶어 몸져 누운 이들도 많다"면서 조용히 그리운 이름들을 불렀다.

"함세환(70), 김선명(77), 이세균(81), 임병호(84)..."

지난해 늦장가를 들어 가정까지 이룬 그는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1년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뻐다"며 감격해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도 사람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대된 것만도 큰 수확"이라는 그는 "그렇지만 통일부에 복송을 신청한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68)씨 등 많은 헤어진 이들이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

했다.

현재 양씨처럼 북으로 가지 않고 남아 있는 장기수들은 11명이다. 양씨는 이 가운데 안학섭(72)·김해섭(74)씨 등 3명과 함께 서울 봉천동에서 '우리탕제원'을 운영하고 있다.

정인환 기자inhwan@hani.co.kr

<한겨레 2000/1/12>

[장기수] 64살 총각장기수와 34살 처녀약사 결혼



가진 것 없는 비전향 장기수 노인과 31살 연하의 처녀 약사. 둘 사이엔 국경보다 더 두터운 장벽이 드리워져 있을 것 같은 이들이 결혼을 하기로 했다.

비전향 장기수로 지난해 3·1절 특사로 풀려난 양희철(65)씨와 약사 김용심(34)씨가 오는 16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민회관에서 화족을 밝힌다. 양씨는 지난 61년 고려대 상과를 졸업하자마자 친형을 따라 3개월간 월북

했다 돌아와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36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신부 김씨는 현재 서울 울지 로에 있는 한 대형약국에서 약사로 근무중이다.

둘의 첫 만남은 양씨가 출소한 다음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합동기자회견장에서 이뤄졌다. 장기수 후원회 회원이었던 김씨는 양씨가 한의사 자격증은 없지만 누구보다 한의 학에 정통하다는 소문을 듣고 양씨를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찾아왔다. 양씨는 교도소에서 한의학 관련서적을 섭렵했으며 출소 뒤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우리탕제원'을 운영하 며 동료 장기수 3명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은 사제시간이었을 뿐이었다. "저도 총각입니다.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 는 탕제원뿐이고 나는 노인인데 감히 연심을 품지 못했죠." 양씨는 "이 모든 악조건에도 결혼하기까지에는 오로지 김씨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고 말했다.

지난해 7월쯤 김씨는 처음으로 양씨에게 "사부님과 좀더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싶다" 며 결 혼을 제안했다. 양씨는 "신랑감이 있으면 중신을 서마" 라고 했고, "나는 5년뒤 칠십이 된 다. 노인과 함께 하는 삶이 기가 막히지 않느냐" 고도 설득했다. 그러나 김씨는 "왜 나쁜 면만 보느냐 지금 이 시간 나는 행복하다" 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김씨는 양씨에 대한 설득 뿐 아니라 양씨보다 나이가 적은 어머니 등 가족까지 끈질기게 설 득해 양씨의 허락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양씨는 "김씨의 정성도 마음에 들지만 탕제원 근처 신방도 대부분 재활용품으로 장만하는 등 요즘 처녀 같지 않는 점이 마음에 든다" 고 말했다.

경희대 약대 84학번인 김씨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학교를 중단하고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노 동운동을 하기도 했다. 다시 학교에 복학해 약사자격을 딴 뒤 2년전부터 약사로 일하고 있 다

김씨는 "사부님의 한의학 실력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인생이 너무도 존경스러워 결 혼하기로 마음먹게 됐다" 고 말했다.

"신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사회적 통념상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는 양씨는 "김씨와 함께 올해 아흔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기수 유한묵 선생 등 4명의 장기수가 공동생활하는 탕제원을 더욱 알뜰히 꾸려가겠다" 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number3@hani.co.kr

<한겨레 1999/6/13>

장기수 할아버지의 '통일 관두자'

오늘은 고양청년회 모임이 있는 날이다. 장기수 할아버지 양희철님이 오셔서 민족의학에 대 해 강연회를 한다고 해서 일까지 빼먹고 참석을 했다.

강연회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고양청년회 회원들 한 30명이 모여 있었다. 들어간 지 한 3분쯤 됐을까. 양희철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키 와 몸집은 작아 보이지만 가슴을 활짝 핀 모습이 당당해 보였다. 조금 웃는 듯한 온화한 얼 굴에서 부드러운 느낌을 받았다.

강연이 시작되기 전 노래패 희망찾기가 노래를 불렀다.

"버려진 사선 철길을 따라 민중의 가슴 차표를 쥐고.." 잔잔한 노래 때문인지, 양희철님 때 문인지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양희철님은 감옥에서 37년을 사셨다고 한다. 20대에 들어가 60대까지 37년! 말이 37년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그 속에서 사상 전향을 하라는 그 모진 고문, 협박, 매를 버티고 사셨을 생각을 하면..

양희철님은 그 속에서 병든 몸을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며 민족의학, 생활의학, 침 놓는 법 을 배웠다. 침은 서류를 찌는 조그만 핀을 갈아서 만들었다고 한다.

강의 내용에 색다른 건 없었다. 과음과 과식은 건강에 해롭고, 음식은 고기보다 채소, 그 중 에서 콩으로 만든 음식들이 좋다. 또 자기 2시간 전에 무엇을 먹는 것은 몸에 해롭다.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가끔 단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좋다. 대개 그런 것들이었다.

나는 몸이 조금 마르기는 했지만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한 편이라 민족의학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관심이 없었다. 그런 내용들이 그분 체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믿 음이 갔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른 곳에서도 가끔 듣는 내용들이었다.

내가 일까지 빼먹고 여기 온 것은 양희철님이 어떤 사상으로, 어떤 신념으로 37년을 감옥 속에서 살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였다. 하지만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았다.

강의가 끝났다. 양희철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국가보안법, 그거 철폐하면 안 돼요. 통일? 그거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조용했다. 양희철님은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면, 지금 국가보안법 철폐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터인데 그 실업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도 실업자가 많은데.. 또 통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몇몇 있어요. (.)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는데 뭐 하러 통일합니까?"

아하! 사람들이 낮게 웃었다. 그런 걸 '역설법'이라고 하나? 양 선생님 말씀에는 비웃는 듯 한 말투에 잔잔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 김해섭

본적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하학리 525번지  
1928.5.16생  
1937. 덕천초등학교 입학  
1943. 3. 상고졸업  
1943~46. 서점근무  
1945~48. 학원수업  
1948~50. 9. 전북 정읍군 이평초교 근무  
1950.10~52. 2.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 중 체포  
1970. 2. 1 만기출소  
1975. 7~89. 8.9 사회안전법 석방  
아들 : 김달성

### <2001.4.24 장산곶매>

은발의 예지와 따뜻한 웃음의 김해섭선생님 댁을 방문한 후...

시사위원장 김주연

(전략)

올해로 73세이신 선생님은 전북 정읍이 고향입니다. 선생님의 조부께서 봉건유생으로서 갑오농민전쟁에도 참여하셨고, 또한 아버님께서 항일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등 가정 환경부터가 애국애족적인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선생님 역시 어렸을 때 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소년이었는데, 선생님의 첫 투쟁이야기를 잠깐 하면...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그 학교에는 아주 난폭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본 선생이 있었는데 5학년 때 그 선생님이 담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폭력이 너무 심하여 선생님께서 당시 반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거사(!)를 준비하셨다. 바로 동맹휴업! 당시 전교생은 50여 명 정도였는데, 약속한 날에 맞추어 한 명(그 담임선생님과 한집에 사는 학생이었다고 함)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빼고 학교 뒷동산(현재에는 갑오농민전쟁기념비가 있는 곳)에 올라가서 함께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렇게 첫 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선생님께서는 청년기를 보내면서 늘 어렵פות하게나마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껏 품으셨다고 한다. 선생님은 이후 사범대에 진학하셨는데, 어릴 때 기억을 더듬 으며 훌륭한 교사는 어떠해야 한다는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다.

그 후 해방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다. 선생님께서도 당시 인민군대가 마을에서 선전한 내용들-토지개혁이나 인민정권에 대해서-동감하시고 그 내용들을 함께 알려내셨다고 한다. 선생님이 기억하시기로는 당시 마을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다시 인민군대가 쫓겨나가게 되면서 선생님은 심히 갈등하시다가 입산을 결심하셨다고 한다. 선생님이 당시 가장 크게 고민하셨던 것은 다름아니라, 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이들 앞에서, 어제는 대한민국을 찬양하고 오늘은 인민군대가 맞다고 하고, 다시 또 내일은 대한민국이 맞다고 하는 위선과 거짓이 아닌 양심의 소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점이셨다고 한다. 그렇게 입산한 후, 1월 공세 때 검거되셔서 20년형을 선고받고 4.19혁명 때 2년형 감형을 받은

후, 73년경에 출소하셨다고 한다. 주변의 권유로 선생님 나이 48세 때 결혼도 하시고 안정을 찾아갈 때,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사회안전법이 생겼고 선생님은 다시 감옥에 가지게 되었다. 결혼한 지 2달이 채 안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와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89년 만기출소하신 후에, 함께 감옥생활을 하셨던 임방규 선생님께서 자신의 6촌 여동생을 소개시켜줘 근 1년간의 공방(?) 끝에 함께 남은 인생의 반려자로 여기면서 가정을 꾸리시게 되었다고 하신다. 이 부분은 사모님께서 직접 이야기 해주셨는데, 처음 김해섭 선생님을 소개받았을 때는 사위도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된다고 펄펄 뛰셨다가 선생님의 자상함과 성격에 매료되었고, 지금은 자제분들도 모두 선생님을 친부모 이상으로 모신다고 한다.

선생님은 요즘 매우 바쁘시다고 한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다른 장기수 선생님들께서 복송되신 후, 자신의 할 일이 더욱 많아졌다고 느끼시면서 여기 저기 행사에도 부지런히 다니시고, 우리 청년회를 찾는 발걸음도 더욱 재촉하신다고 한다. 평생의 숙원이신 통일조국이 눈앞에 와 있는데, 오늘 하루 과연 조국과 민족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하고 주무시기 전에는 꼭 한번 더 생각하신다고 한다. 전사로서의 삶은 그저 오는 것일 아닐 것이다. 1분1초를 허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기준과 방향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목적의식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삶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 바로 김해섭 선생님이었다.

<후략>

## 63+질문 사항

1. 정확한 수감 장소, 수감 년도, 적용법규?
2. 왜 전향하지 않으셨나?
3. 출소하신 분들 이 탕제원을 여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뭘까? 약 다루는 기술은 어디서?
4. 최근에도 통일운동 및 사회활동에 바쁘신 걸로 안다. 아직까지 당신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나? 결국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통일이라면 어떤 모습의 통일을 말하는 건가?
5. 왜 북으로 가지 않으셨나?
6. 6.15 남북공동선언이 1주년이 지났다. 어떤 감흥이 들었는지?
7. 수감 당시 겪었던 전향 공작의 구체적인 예는, 기억나는 가해자는? (안학섭씨가 있었던 당시, 70년대 광주 교도소 사망자-현명원, 이동근, 박윤영, 정순직, 이영호, 장한영, 임창규)
8. 처우는 어떠했나, 건강에 이상이 있지는? (서신교환 제한, 집필 불가, 필기도구 소지금지, 서적 권수 제한, 사약불허 등등의 치사한. 김해섭씨는 결핵을 앓았고, 안학섭씨는 광주에 있을 때, 위장병이 악화되어 치료를 요구하자 전향을 해야만 치료를 해 준다고 치료 거절했다고)
9. 전향서는 어떠한 형태였나?
10. 92년 대전교도소 비전향장기수 사상전향제도 헌법소원 소재기자 명단에 안학섭씨와 양희철씨의 이름도 있는데 그때 분위기나 상황은 어떠했나? (왜 하필 누진처우문제였나?)
11. 사상 전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준법서약서로 대처되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12. 가족이야기, (모두 출소후 결혼했다. 안학섭씨는 아버지가 빨갱이라고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13. 안학섭씨는 국가경비법으로 감금되었는데, “법률로 제정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수십년간 불법 감금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선명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각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둘째는 행정소송. 석방 뒤에도 국방경비법 적용에 따른 보안관찰에 처해진 김선명씨 등이 보안관찰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대응은 시간끌기였다. 2년마다 갱신되는 보안관찰처분 기간의 첫 2년을 재판도 없이 시간만 끌다가 각하한 것. 2기 보안관찰 기간에 다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2월초 대법원의 기

각판결이 나왔다.

마지막은 98년 10월9일에 제기한 헌법소원. 국방경비법에 따라 형을 복역한 자는 국가보안법에 준해 보안관찰대상이 된다는 보안관찰법 부칙에 대해, 무효의 법에 의해 형을 산 사람에게 다시 보안관찰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헌법위반이란 소송이다. “

이 소송은 현재 어떻게 되었나?

## 임방규씨 촬영스케줄

### 위치

권낙기씨 댁에서 몇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가깝다고.

구파발에서 통일로 쪽으로 달리다가 두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하면 전원주택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중 한양주택 440동 121호

### 연락처

011-9830-2668

### 약력

1932년 6월 16일생

1946. 부안군 부안소학교 졸

1946. 9. 고창중학교 입학

1947. 민주학생동맹 가입

1948. 전주 공업고등학교 전학

1950. 중퇴. 전쟁시 의용군 입대

1950.10. 후퇴시 임실 성수산으로 입산.

**외팔이 부대(전인원 약5백명) 정치부 중대장.**

1952. 3. 민트에서 체포. 광주 포로수용소 수용.

1952. 9.14 국방경비법 32조에 의해서 사형 언도.

1954. 3.14 군법에서 무기로 감형과 동시에 대전으로 이감

1960. 4.19 20년 감형

1968. 4.12 전주로 이감

1972. 7.14 전주에서 석방. 서울에서 페인트공으로 생활

1977. 4. 결혼. 딸1

1977.10. 1 보안감호소

1989. 9. 7 석방.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73년에는 출옥한 상태.. 86년 전후, 감호소 내의 전향공작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 전주에서 석방된 후 결혼하여 결혼 5개월만에 다시 보안감호소로 가게 된 비운의 인물. 감호소 갈 때 이미 아내는 임신중이었다고. 자신의 막내동생도 아버님이 감옥에 계실 때 태어났다고 하며 웃으심. 아버지는 왜 감옥에 가셨냐고 여쭙니 통일운동이었다고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역시 빨치산 활동을 하신 게 아닐는지 추측됨.

감호소 출소 이후 4년간 부인이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함. 올해 한세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준비하고 있는 딸도 처음에는 아빠라고도 불러주지 않아 애태웠다고. 그래서 아직도 가족들이 TV에 나오는 것은 꺼려함. 이번에도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처음에는 곤란해했으나, 분위기로 봐서는 집에 가서 부인과 딸에게 잘 얘기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듯.

처음에 출소해서 민중당제원을 꾸렸을 때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때 동아일보 기자가 비전향장기수들도 자본주의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꽤 씩한 기사를 써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인터뷰를 한 일이 없다고 함. 지난번 지리산 기사도 자신과 상관없이 한겨레 기자가 자의적으로 썼다고. 덕분에 자신의 일흔 나이가 10년이나 뺏기기 돼 여든으로 실렸다고. 그러나 우리 프로그램에는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

말씀을 차분하게 잘 하시고 인상이 매우 인상적임.



질문 사항

1. 수감 교도소와 이감된 해. 사건명.
2. 왜 전향하지 않았는가?
3. 만기출소후 보안감호소를 다시 들어가야한다는 통보는 어떻게 왔으며, 그 때 느낌이 어땠나? 그때 상황에 대해서... (결혼 5개월의 신혼이었는데...)
4. 전향공작의 구체적인 사례는(86년 전후한 전향공작)?
5. 교도소에서의 처우에 대해...(김경익, 김홍직, 송순희, 김용선, 최점수, 문갑수, 백갑기, 안준호, 이훈동, 변형만, 김규창, 공인두, 김용성씨 등이 임방규씨 수감 당시 사망자)
6. 80년 강제급식에서 변형만, 김용성씨가 사망했는데, 당시 가해자인 박종호 교회사, 최종대 교사, 감호과장 오기수, 의무과장 오성호 등에 대해 기억하는가, 혹시 소재를 알고 있진 않은지?
7. '임방규 외 2인은 급식을 하지 않으면 계엄사령부로 연행하는 척 쥘차에 태우고 연극을 꾸민후 옆 청주교도소로 옮기는 기만극으로 전체 감호자의 사기를 꺾으려 했다' 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8. 89년 감호소에서 출소한 것은 사회안전법의 폐지에 의한 것이다. 나올 때는 어떤 기분이었으며, 남아있던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나?
9. 사회안전법 폐지는 곧바로 보안관찰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보안관찰법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옥죄었을 텐데,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다면? 그리고 언제까지 보안관찰이 있었나?
10. 지난 5월 26일 지리산에서 열린 위령제에 참여하신 것으로 안다. 전쟁 당시 외팔이 부대 중대장이셨다는데, 산에서 있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또한 이번에 지리산 위령제에서 감회가 새로우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11. 빨치산은 전쟁 포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중 어떤 이는 전향했다는 이유로 복송을 원해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의원회관 724호

788-2360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 추진보고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오늘, 1948년 12월 10일 제3회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世界人權宣言을 채택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尊嚴성과 權利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를 엄숙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不可侵, 不可讓의 것이며, 국가를 포함한 모든 권력에 우선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입니다.

그이후 지금까지 UN의 세계인권선언은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에 배포되었고, 80여개의 국제인권협약을 비롯하여 세계각국의 헌법과 법률에 그 정신이 반영됨으로써, 인권에 관하여 가장 보편적인 최고의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UN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 되는 올해를 「세계인권의 해」로 지정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모든 인류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50년만에 최초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인권의 중요성에 관하여 세계와 인식을 같이 하고,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본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질서와 인권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사회의 구현」을 새로운 법무행정 지표로 설정하고, 법질서의 확립과 인권보장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의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아울러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새정부들어 두차례의 사면을 통하여 준법서약을 한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을 포함하여 도합 1,503명을 석방하거나 감형 또는 복권조치 하였습니다.

일제때 시작되어 장장 60년간 시행되어온 「사상전향제도」는 인간의 내심에 있는 사상의 변경을 국가 권력이 강요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새정부는 공안사범에 대하여 출소후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이 국법질서에 위배되지 않기를 요구할 뿐, 인간의 내심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국가보안법의 확장해석과 남용을 금지하였습니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겠으나, 우선 그 전단계로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사안의 경중을 구분하여 구속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그결과 11월 30일 현재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입건자 수가 약15% 감소하였고, 구속인원은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 국가보안법 남용 금지조치는 사상전향제 폐지 등과 함께 이제 공안사건 수사와 형집행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인권침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새정부의 「신공안정책」의 일환임을 보고드

립니다.

넷째, 불법감청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새정부는 지난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국가기구의 전기통신감청은 반드시 법관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어린이유괴범의 협박전화나 마약조직의 접선전화와 같이 긴급한 감청이 필요하여 사전에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수사관 작성의 긴급감청서를 교부하고 감청토록 하여 '서류'의 근거를 남기고 이를 법원에 통보토록 하여 사후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토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개정 전에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법무부장관이 전국검찰에 특별지시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형집행 과정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찰청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하고 교도소와 구치소의 모범수용자에게 전화사용을 허용하였으며, 가족 합동면회를 확대 실시하고 신문구독과 텔레비전 시청도 폭넓게 허용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사회 적응 효과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아동과 여성이 아버지와 남편의 국적을 따르게 되어있던 국적법을 개정하여 국적선택권을 보장하고, 남계혈통에 의거 혼인의 자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동성동본간의 혼인금지에 관한 규정과 이혼여성의 재혼을 제한해오던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대위적으로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자행한 개인에 대해 국제적 처벌을 담당할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준비를 비롯한 인권분야의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인권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대통령선거공약이자 「국민의정부」의 100대 정책과제인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법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구제와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 외에 범죄로 규정되지 아니한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구제까지 규정할 것이며, 그 실천을 위해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권법이 제정되어 내년에 인권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면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한국의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정부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새로이 다짐하면서, 인권상황 개선추진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천

질문 요지

1. 사상전향제도의 폐지는 인권 투쟁의 역사에 있어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준법서약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준법서약서가 사상전향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에 다름 아니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과연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3. 준법서약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왜 시국사범에게만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릉역 1번출구에서 포스코 빌딩 방향으로 100m 방향. 다봉타워 10층  
법무법인 지평  
연락처 3430-4336

우리나라 인권의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UN 인권위원회에 대해 전문가.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의 진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

'솔직히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거라기 보다는 역사의 진행 상황이 그렇지 않겠는가, 전두환 때보단 노태우 때가 나았고, 노태우 때보다는 김영삼 때가 나왔다. 오히려 인권대통령으로 노벨상까지 받은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알릴 기회는 오히려 적어져'

1. 92년 당시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반박보고서를 내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반박보고서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2. 당시 우리나라 인권 상황은 국제적으로 어떠한 위상(?)이었습니까?

3. 빨치산이나 남파간첩으로 수감된 사람들의 지위에 대해, 그들은 포로로 인정이 된 상태입니까?

4. 국방경비법이 유령법이란 논란이 있습니다. 95년까지도 이 법으로 인해 감옥살이를 하던 김선명씨, 안학섭씨, 한장호 씨 등에 대해 접견을 시도하고 소송을 준비하시던 중에 세 분이 석방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벌이셨는데, 국방경비법에 대한 대체적인 이야기와 소송 과정과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5. 그밖에 인권과 관련하여 국내나 UN인권이사회에 제소하신 사건은 없습니까?

6.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한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불만이 없으십니까?

# 7월 둘째 주 지방 일정

7월 11일 (수)	
익산 ▶ (전주) ▶ 정읍	
주인식 황세연 -오후 2시-	호남고속도로 전북 익산시 모현동 주공아파트 210동 206호 반공법 위반. 5/7일 황세연씨가 주인식씨를 설득하여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음. 황세연씨의 경우, 소송끝에 얼마전 복직 당시 월급 14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841-0340 016-325-5534(황세연)
한상열목사 -오후 4시-	익산역 김영식씨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 011-9695-3131 063-282-8192(교회)
한운덕	전주 덕진 진북1동 322-9 나 한운덕 아니라고 잡아뭬. 063-251-2675
강철형	전북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관음사 주지 전화에서는 강철형이라는 사람 모른다고 하는데, 스님하나 밖에 없는 절에 스님이 마지막으로 바뀐 지 10년이 다 되간다는 것으로 보아, 2년전 한겨레가 취재한 사람이 맞는 것으로 보임 1973년 당시 광주교도소 교무과장. 73년 10월, 광주 교도소 비전향자 64명, 74년 4월에는 39명, 60%를 전향시킨 인물. 변치수씨 사망. 78년 4월경 전주로 부임. 탁해섭씨 사망. 063-536-0772(관음사)
7월 12일 (목)	
▶광주	
강용주	
서육렬 오전10시	광주시 북구 각화동 주공아파트 101동 1108호 만난 중 가장 인텔리로 보이는 분, 잘 모르면 위낙에 타박이 많아서 좀 무섭다. 고대 3학년 재학 중 6.25전쟁이 일어나자 의용군으로 인민군 참전 월북.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부를 나와 대학강사를 하다가 1960년에 공작원으로 광주에 내려와 체포. 대전교도소 특사에 있다가 같은 방에 있던 정치범이 출소해 다시 잡혀오는 바람에 교사자로 추가형. 30년간 수감. 062-266-0698
정일봉	광주북구 두암동 59-20 미라보 아파트 102동 504호 73년 당시 광주교도소 교회사. 이규연과 함께 최고의 악질로 불렸다. 정무종과 원삼실을 이용하여 살인적 폭력 감행. 063-251-2675

7월 13일 (금)	
광주 ▶ 대구	
강신석	광주 무진교회 서준식 선생과 광주에서 한 방에 있었다. 062-376-7774(교회), 011-606-6630
배응찬	대구시 동덕2동 효성타운 103동 302호 '73년 당시에는 대구 교도소에 있었다. 중정 대공분실에서 공작단을 파견하였다. 특채해서 배치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김치연이나 나석규, 당시 소장이었던 이정세면 모를까, 나는 보안과였기 때문에 전혀 당시 일에 대해서 모른다.  웃기고 있다. 대전교도소 부소장이었으며, 당시 밑에 교무과장 김치연을 비롯하여, 전담과장 나석규와 박왕을 두고있었고, 재소자 이돈용과 조석환, 고영재, 김기용 등을 통해 고문했다. 보안과가 동원되었으며, 이 담당으로 김진섭, 이동호, 오영선, 김복술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로는 안영기씨(강당에서 전향의사 강제 발표), 안학섭씨는 위장병 악화로 치료 요구했으나 전향해야 치료해준다고 공갈. 안영기씨의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 특별명의로 생명을 꺾어버려도 좋으니 미전향자는 없도록 하라' 이용훈, 황필구씨 자살. 053-472-7721 011-9820-7721
김대수 박사	대구 수성구 만촌동 1차 우방타운 108동 1401호 의무과 간병으로 출려. 인터뷰 하고 싶지 않다. 당시의 일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입을 연일이 없어 부담스러우며, 지금 말하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053-744-2023, 018-506-2023

6. 전향공작 보도자료

인물 정리

전향관련 보도자료 인물정리

김창석 기자 - 「2001. 2. 22 한겨레21 '더 감시당하고, 더 멀리당했다.'」

박종린(69) 중국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살다 1959년 5월 정치공작원으로 남쪽에 내려왔다가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3년까지 35년간 감옥생활.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어떤 방식으로든 장기수를 뱀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다. 전향서를 쓰면 나갈 수 있다고 하기에 신앙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버텼다. 그때 자주 찾아오는 목사가 계시는 교회와 자매결연한 상태로 내가 전향서를 쓰지 않는 대신 목사님이 보증하는 형식으로 석방되었다."  
과천 한백의 집 기거

정순택(80)충북 음성군 무극면 - 수감 중 쓴 글 정리하여 '지옥일기' 출간. 추가 송환 대상 1순위. 1997년 '보안관찰자의 꿈'이라는 책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향 취소 의사 표명.

정순덕(69) - 정순택씨와 함께 취소선언

윤태영 - 정순택 후원회 위원장

김영식(68) - 2001.1.29 전북종교인 협의회(회장 한상렬 목사)가 주최한 '강제전향 양심선언 및 송환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상전향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 북에서 태어나 1962년 공작원 안내선 선원으로 내려왔다가 체포돼 1964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6년간 복역. 노동계급 출신. 광주 교도소에 복역 중, 1973년 10월부터 두달 동안에 걸친 전향고문에 못 이겨 전향서에 날인. 당시 전향공작 전담반에 8명의 실명을 알고 있다고. "똑같이 당했는데 어떤 놈이 고문을 담당했느냐에 따라 지금 북에 가 있는 장기수도 있고 남쪽에 남아 있기도 한 것."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 장기수 5명의 옥중 의문사 조사하겠노라 발표.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권오현 공동상임대표 - "이들은 전향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통제와 감시를 받으며 살았다. 어찌보면 소외감 속에서 더 멀리서 당한 측면이 크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동료들은 견뎌낸 고문을 나는 왜 견디지 못했을까하는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인해 비전향 장기수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기도 했다."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 - "전향은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의 독립투쟁을 막기 위해 만든 '사법당국통첩'에서 확립된 개념으로, 한 인간의 믿음이나 소망이나 느낌을 폭력적인 흑백논리로 분류해 버리는 비인간화의 체계이며 인간의 긍지를 파괴하는 체계"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내 신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온 사람들 두 명은 스스로 중정직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나중에 그대로 전향공작 전담반에 편성됐다." 「조성곤 기자」

권낙기 (통일광장-장기구금양심수쉼터 대표) - "강제전향 장기수와 함께 지난해 복송된 비전향 장기수들과 생이별해 이산가족이 된 남쪽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라도 복송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전쟁 이후 산에서 유격전을 벌이다 붙잡힌 이른바 빨치산출신으로 1970년 초에 출소한 인민군 포로 출신자들의 복송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강담(69, 서울 강서국 가양동)외 전향장기수 33명 기자회견 2001.2.6 - "군사독재 시절 본인의 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이뤄진 사상 전향은 무효"

「신승근 기자 2000.9.20 한겨레21」

인민군포로 방장련, 최병선, 김광익 -인민군 포로를 억류하는 것은 전범행위다. 복송요구

「황상철 기자 1999.12.2 한겨레21」

김동수(62) 74.1 광주교도소에서 전향. 88.12 출소. 교도소 교무과 사무실에서 고문하며 전향공작을 했던 담당 교회사를 수소문하여 목포에서 교회 목사로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91년 목포대 총학생회를 찾아가 고문사실들을 말하고 교회를 찾아내 폭로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교회 이름을 알 수가 없었다고.

이공순(66) 광주 통일의 집 기거 - "광주 교도소에 있을 때 포승줄을 꼬아 만든 '뱃줄 몽둥이'로 맞은 자리가 아직도 쭈서 편히 못 눕는다. 오른팔도 고문으로 제대로 쓸 수 없다. 밥을 적게 주는 것이 큰 고통이었다. 4번 입에 대면 끝이었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감옥에서 밥을 빨리 먹어야 했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기점으로 전향을 요구하는 강도가 180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교도소마다 가끔 전향을 권유하는 정도였던 것이 이후에는 직접적인 테러로 바뀌었다." 「조성곤 기자」

이경찬(65) - 언젠가 가족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 치매를 막으려 학그림을 그린다 고.

「199.12.2 한겨레21 조성곤, 황상철 기자」

고문 기술자에 대해

신인영(70) - 이근안 자수를 계기로 자신이 당한 고문 실태와 고문 당사자들을 세상에 고발하려. 1999년 11우러 암투병중이었음 (민가협)

광주교도소

정우중, 원삼실 - 폭력전과 재소자 '떡봉' 완장차고 고문. 가석방시켜준다는 약속을 받거나 또는 담배와 술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후 재소자가 재소자를 구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전담반원이 직접 고문에 나섰다. 전담반원 -이규연, 김무웅, 최한주, 한윤덕, 당시 교무과장 강철형(68 그 뒤 전주 교도소로 전근해가 78년 10위께 일주일동안 10여명의 비전향자 가운데 8명 강제 전향\_\_

류락진(71) 통혁당 재건위 사건- 정, 원에게 당한 물고문을 생생히 기억. "철성판 위에 올려놓고... 광목천을 얼굴에 덮고 큰 주전자 2개로 물을 들이부어..." "전담반 고문할 때, 너 하나 죽이는 건 암것도 아냐."

안학섭 - "떡봉이들은 술냄새를 풍기면서 고문했다. 12월에 발가벗긴 채 눕히고 얼음물을 떨어뜨렸다. 얼마 뒤 졸도했다."

광주에서 당한 사람 - 이인모, 이경찬, 신인영, 한장호, 서준식 (신춘복동 여럿은 고문 휴유증으로 사망)

정일봉(60. 당시 전담반원)- "나는 잘 모른다. 당시 하위직 공무원이었는데, 하위직 공무원은 자기 의지보다 정부나 위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강철형(68. 당시 교무과장) - "떡봉이는 모르고, 고문은 없었다. 교화는 상담을 통해 이뤄졌으며, 공산주의 확신자들을 설득해 자유 대한의 품에 귀의시켜 다 같이 잘 살아보는 훌륭한 생각에서였다. 당시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정성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한 훌륭한 사람들이다."

대전교도소 / 73년 말에서 74년 초와 86년 전후로 나눠 두 번의 집중적인 전향고문 진행.

작두기 출신 재소자 : 조병길, 이돈웅(50) 패찰만 달지 않았을 뿐.

전담반 직원 : 나석규(62)-안영기씨에 의하면 조에게 고문을 사주한 놈.

교무과장 : 김치연 -사실상 고문을 지시한 사람. 대전, 대구, 전주, 청주를 돌며 1050명의 좌익수 전향시킨 공로로 84년 법무부로부터 교정대상 교화부문을 수상.

73년 당시 전담반원 나석규 "좌익수들과 언쟁을 하다보면 화가 나서 컷방망이를 올려놓은 적은 있지만 직접 고문은 없었다. 이돈웅에게 고문을 지시한 일도 없고, 그런 고문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나중에 청주교도소 재임시절 재소자로 온 이돈웅을 만났는데, '나를 이용해먹기만 했다.'는 말을 재소자들에게 하고 다녀 따끔하게 혼을 낸 적은 있다."

몇 사람 죽은 뒤 한동안 잠잠하다 86년 들어 다시 고문 자행. 전담반이 아니라 보안과 위주로.

보안과 8급 교사 이동균 -선두에 서서 고문을 직접 자행

85년 부임 교도소장 배웅찬 -"내가 직접 손을 댄 일도 없고, 고문을 지시한 일도 없다."

안영기 -73년 9월 조병길로부터 8시간 무차별 구타끝에 전향. "73년 전향을 자인한 뒤 강당에서 발표할 때 한 전담반 직원은 '대통령 특명으로 생명을 꺾어버려도 좋으니 비전향자는 없도록 한다는 게 방침'이라며 공개적으로 비전향자들에게 떠들기도 했다." 「조성곤 기자」

김동기 - 85년 중반께 배웅찬 교도소장이 부임하면서 처우가 급격히 나빠져 비전향자들이 단식에 들어가자 강제급식을 한다며 소금물 고문 자행. "이동균이 정복을 입었던 것으로 보아 교도소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

함주명(68) - 간첩혐의로 15년 수감. 1998년 8.15 특사로 출소. 이근안에게 고문. 조작간첩의 대표적 사례. 1999년 4월 월간지에 구직 광고. (민가협)

김동수(63) - 남한에 남기로 결심한 장기수. 1974년 1월 광주교도소에서 전향서. 88년 12월 출소. 보호관찰대상으로 경찰관이 행적을 묻고 다녀 참살없는 감옥생활. "내가 제일 막내라 여기에 남아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하고 싶다. 북의 가족을 보고 싶지만 극복하려다." 부산 인권센터에 적을 두고 있음. 인권단체가 마련해 준 12평짜리 영구임대아파트에 홀로 기거.

서미라(40) -장기수 7명의 삶을 담은 '0.75평 지상에서 가장 작은 내 방 하나' 출간

강용주 -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 7. 전향공작 관련 정리

## 전향공작 관련 정리

### 1. 확산범의 개념

파렴치범과 대립된 도덕, 종교, 정치적 의미의 확산이 결정적 동기가 되어 행해진 범죄로, 옥중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존중하려는 의도에서 1923년 독일의 라트브루흐(Radbruch)에 의해 창안되었다. 이 제도는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되며 오직 논쟁할 수 있을 뿐"이라는 근대의식 속에서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누진처우제도를 반체제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왜곡시킨 것은 제국주의로 치닫던 일본. 다른 나라의 경우 확산범의 존엄성과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강제노역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나 일제는 이 제도를 정치범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합법화해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가혹하고 엄격한 구금의 성격으로 변질시켰다.  
우리나라는 57년부터 비전향수의 소내취업금지.

### 2. 92년 비전향장기수 90명

그중 대전: 44명

일본사건3, 월북 및 행방불명자 가족 1, 납북귀환어부 1, 민주화운동관련1, 방북 사건1, 조직 사건 3, 정치공작원 34

### 3. 전향, 비전향

한옥신 1974년 논문 중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4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전향자가 259명, 비전향자가 168명  
정확한 시기가 없어 신뢰도에 문제.

동계?

### 서준식 증언

71년 비전향 좌익수 450여명

73년 당시. 전국 4개 교도소의 비전향 좌익수 400여명

광주 64, 대전 250, 대구 70, 전주 14

73년 10월 테러시작

(광주교도소 73년 10월 비전향장기수 64명에서 74년 5월 39명으로, 60% 전향)

73년에서 75년 2년이 못되는 사이에 각 교도소마다 남아있는 비전향좌익수는

광주 : 45명

대전 : 100명 이하

대구 : 30명

전주 : 10명 정도

185명 정도, 반 이상이 전향.

### 4. 해외의 경우

미국 형법에 있어 간첩죄나 반역, 치안방해 및 파괴죄는 우리 형법상의 유사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보안법과 비교될 것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전복활동 통제법이나 공산주의자 규제법은 1950년대 냉전과 매카시 선풍을 배경으로 적용되다가 1960년대 들어 일부 조항(매카렌법 스미스법 등)이 위헌으로 선언되고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것이다.

### 7) 대만의 예

대만의 경우 우리와 같은 분단상황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다. 그런데 대만은 1987년에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국가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을